

보도 일시	2021. 12. 21.(화) 15:00	배포 일시	2021. 12. 21.(화) 09: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책임자	과장 왕기영 (044-203-2851)
		담당자	사무관 권순우 (044-203-2855)

##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한 2021 한국관광의 별 8개 선정 - 12. 21. 시상식 개최, '지속가능성' 분야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21일(화) 오후 3시, 신라호텔 토파즈홀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2021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그동안 관광지 65곳을 포함해 '관광의 별' 총 106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본상 3개 분야에서 4개, 특별상 3개 분야에서 4개 등, 총 6개 분야에서 8개를 선정했다. 특히 특별상에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체 및 관광 프로그램' 분야를 신설했다.

### <2021 한국관광의 별 선정>

부문	분야	수상자
본 상	그 자체의 매력이 뛰어난 관광지	서귀포 치유의 숲(제주 서귀포)
	새 단장(리모델링), 신규 콘텐츠와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 관광지	수원화성 야간관광(경기 수원) 신안 퍼플섬(전남 신안)
	관광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한 관광지	킹카누나루터(강원 춘천)
특별상	신규	신규 관광지(3년 이내) 중 독특한 매력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지
	공로	대중문화 전반의 공로로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지속 가능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또는 관광 사업체 및 관광 프로그램
		9.81파크(제주 제주시)
		황동혁(<오징어게임> 감독) 충청남도 서산시 오지 어촌계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 서산 머드맥스편)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협)

## 본상에 ‘서귀포 치유의 숲’, ‘수원화성 야간관광’, ‘신안 퍼플섬’, ‘킹카누나루터’ 선정

‘그 자체의 매력이 뛰어난 관광지’ 분야에서는 ‘서귀포 치유의 숲’을 선정했다. 한라산 해발 400~760m 고지에 있는 ‘서귀포 치유의 숲’은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숲길, 야외 치유공간, ‘힐링센터’ 등을 갖추고 ‘위로의 숲’ 등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수원화성 야간관광’과 ‘신안 퍼플섬’은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 관광지’ 분야에서 한국관광의 별이 됐다. ▲ ‘수원화성 야간관광’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매체예술(미디어아트)과 빛의 산책로를 만들어 기존의 주간 중심의 관광을 야간관광으로 확대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했다. ▲ ‘신안 퍼플섬’은 섬에서 자생하는 보라색 청도라지와 꿀풀 등의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 ‘사계절 보라색 꽃이 피는 섬’이라는 기획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다. 특히 세계관광기구(UNWTO)는 ‘신안퍼플섬’을 지역주민들과의 협업 우수사례로 ‘2021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에 선정했다.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가 충분한 관광지’ 분야에서는 ‘킹카누나루터’가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킹카누나루터’는 의암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열린 여행지이다. 시각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안내도와 촉지도를 설치했으며, 전문 안내인인 ‘킹스맨’을 통해 관광 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카누의 한쪽 면도 개방형으로 만들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게 했다.

## 특별상에 9.81파크, 황동혁 감독, 충청남도 서산시 오지 어촌계, 하동주민 공정여행 놀루와(협) 선정

‘신규 관광지 중 독특한 매력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지’ 분야에서는 ‘9.81파크’가 선정됐다. ‘9.81파크’는 자동차 공학,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포츠와 게임을 융합한 다양한 경주(레이싱)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원(테마파크)이다. 이용객의 60%를 청년층(MZ세대)이 차지하는 등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주(레이싱)와 함께 제주도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올해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영상(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 중 큰 인기를 얻은 ‘서산 머드맥스’ 편의 충청남도 서산시 오지 어촌계는 ‘대중문화 전반의 공로로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분야에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 작품 속에 ‘오징어 게임’, ‘뽕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한국 놀이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작품 인기가 여행상품과 관광 체험 행사 개발로 이어져 한국 관광 홍보에 기여했다. ▲ ‘충청남도 서산시 오지 어촌계’는 서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대산읍 오지리 갯벌을 배경으로 주민들이 바지락을 채취하러 가는 과정과 서산의 주요 관광지 모습이 ‘서산 머드맥스’ 편에서 공개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주민들은 영상을 제작할 때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경운기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은 영화 <매드맥스>를 참신하게 따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신설한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체 및 관광프로그램’ 분야에서는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협)’를 선정했다.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협)’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도시 청년 등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다. 지리산, 섬진강, 차 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 여행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성해 문화사업,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미래의 농촌마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체부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로해준 ‘한국관광의 별’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밝게 비추는 많은 ‘한국관광의 별’들이 대한민국 관광업계를 수놓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붙임 2021 한국관광의 별



부문	분야	사 진	개 요
본상 ①	서귀포 치유의 숲 (제주 서귀포시)		한라산 해발 400~760m 고지에 조성된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숲길, 야외 치유공간, 힐링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 속 '위로의 숲' 등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
본상 ②	수원화성 야간관광 (경기 수원)		'수원화성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기존 주간 중심의 운영에서 관광 소재를 확장함. 화성행궁 야간개장,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성곽길(빛의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 받고 있음
	신안 퍼플섬 (전남 신안)		섬에서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 등의 생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계절 보라색 꽃이 피는 섬'이라는 컨셉으로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하는 '세계관광우수마을' 중 제일 높은 등급인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21.12월)됨
본상 ③	킹카누 나루터 (강원 춘천)		의암호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물길 여행 코스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이동의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함. 특수 제작된 카누 이용 시 휠체어 탑승한 채 카누 체험이 가능함
특별상 (신규 관광지)	9.81파크 (제주 제주시)		스포츠와 게임을 융합한 레이싱 체험을 제공하는 테마파크로, 자동차 공학, IoT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하며 2020년 정식 개장 후 큰 인기를 끌며 잠재력을 보임
특별상 (공로)	황동혁 감독 (오징어게임)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한국의 놀이문화를 소재로 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여행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됨
특별상 (공로)	충남 서산군 오지 어촌계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 머드맥스편)		서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대산읍 오지리 갯벌을 배경으로 영화 '매드맥스'에서 착안 제작한 관광 홍보영상에 오지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바지락 채취 현장 등을 역동감 있게 구현
특별상 (지속 가능)	하동주민공 정여행 놀루와(협)		지리산, 섬진강, 차 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여행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기업과 협업체 계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함. 또한 여행을 기반으로 지역 내 문화 사업,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함